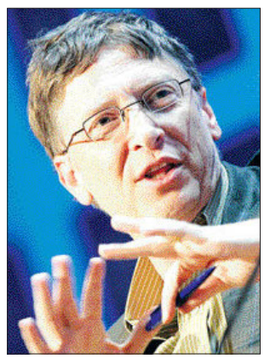
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결혼? 맞선 100번에도 아직이라면!

제1768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2월 22일 (음력 1월 5일) 목요일



"내 딸 컴퓨터게임 못하게 한다"

빌게이츠 "하루 45분 허용"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녀들이 틈만 나면 컴퓨터에 매달리는 것이다. 게임이나 인터넷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중독'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렇다면 '컴퓨터 황제'인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자녀는 하루에 몇 시간 씩 컴퓨터를 할까.

게이츠 회장은 지난 2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 자신의 집안을 실례로 들어가며 자녀의 컴퓨터 사용시간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게이츠 회장은 큰 딸(10)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원 가꾸기 게임인 '비바 피나타' 등 컴퓨터 게임에 푹 빠졌으나 온 종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일의 경우 45분, 주말 한 시간이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단, 숙제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10살, 7살, 3살된 자녀 셋을 두고 있는 게이츠 회장은 "일정한 나이가 될 때 까지는 자녀가 컴퓨터로 무엇을 들여다 보고 있는 지 부모가 알아야 하고 그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약자에 강한 신용카드사

수수료, 슈퍼 등 영세업자에 더 받고 대형할인점엔 덜 받아

동네슈퍼-대형할인점 수수료율 1.6%P差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이·미용실과 옷가게 등 힘없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하는 대신, 대형 유통업체와 병원 등 소위 힘있는 기관에는 낮게 적용해 영세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업종에 따라 최대 3%P까지 차이가 나면서 영세 상인들의 경우 수수료 비용이 세금보다 많고 수익의 40%까지 차지하기도 해 업종간 수수료율 격차 해소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1인당 3.3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웬만한 업종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80%를 넘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업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다음 이 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업소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돈으로,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177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의 1.5~4.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보면 애완동물 가게 4.01%, 이발소 3.98%, 미용실 3.96%, 피부미용실 3.68%, 부동산 중개업소 3.67%, 옷가게 3.63%, 비디오가게·세탁소 3.61% 등 중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종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한의원 2.65%, 의원·약국 2.65%, 항공사 2.43%, 일반병원·대형할인점 2.40%, 대학교 1.99%, 골프장 1.69%, 종합병원 1.63% 등은 1~2%대의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단위:%〉

업 종	수수료	업 종	수수료
유흥주점	4.50	대학	1.99
애완동물	4.01	골프장	1.69
상품권판매	3.72	종합병원	1.63
피부미용실	3.68	주유소	1.53
부동산중개	3.67	LPG취급점	1.53

광주시 서구 풍암동 A아동복 가게의 경우 지난달 4천11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중 카드매출이 전체의 75.4%인 3천100만원이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3.6%이다 보니 수수료 비용으로만 111만6천원이 나갔다.

가게 주인 김정숙(36)씨는 "매출에서 판매수익금과 경비,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월 수입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며 "애써 팔아보았자 신용카드사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소연 했다.

문제는 동일 상권에서 영업을 하는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업체와 길거리 상가 사이에도 연간 수백만원의 수수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광주 모 대형마트 있는 기성복 매장과 충장로에 있는 같은 브랜드의 옷가게가 월 평균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카드매출이 70%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대형마트 매장은 2.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충장로 가게는 3.6%가 적용돼 충장로 가게가 연간 672만원의 수수료를 더 낸다.

신용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에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신용도와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져 안전한 채권확보차원에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채권을 못받을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대손율'은 가맹점이 아니라 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들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섬진강 강마을 봄·봄·봄

이상난동 탓일까, 봄의 전령사인 매화가 벌써 새하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21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의 만개한 매화꽃 아래 어린이들이 봄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매화꽃은 보통 2월 말 피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15일 앞선 지난 10일 부산에서 처음 개화했다. 21일 광양의 낮 기온은 봄 날씨인 17.7도까지 올라갔다.

/광양=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盧대통령 오늘 탈당 선언

與지도부 만찬서…내달 총리 교체 등 부분 개각

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22일께 열린우리당 당적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탈당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은 후 내달중 당 출신인 한명숙 총리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조만간 당적 정리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2일 저녁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해 2·14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짜여진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어서 당 지도부로부터 당적 정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당적 정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2~3일내에서 결론을 낸다는 것"이라며 "내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노 대통령의 의중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 지도부 면담에 이어 오는 26일 한 총리와의 주례오찬 회동 자리를 통해 여당 당적 정리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설명하고, 한 총리의 거취 등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총리 외에 유시민 보건복지, 이상수 노동,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본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전硏 끝내 분리

오재일 원장 오늘 사의

오재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광전발연)이 22일 오후 연구원 이사장인 박준영 전남지사를 만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1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광전발연의 분리에 전격 합의한 이후 시·도민들의 반발을 사온 광전발연의 분리가 현실화됐다. 〈관련기사 3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다음 달 중순께 만나 광전발연 분리에 관한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광전발연 분리 여부는 3월 말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뮤지컬 '에비타' 광주공연
3월 9일(금)~11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